2026년 9월 18일(금) 구역예배 자료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14장 19~31절**
(1)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가 70장을 부릅니다. (2) 구역 식구 중 한 분이 기도합니다.
(3) 출애굽기 14장 19~31절(구103)을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4) 기도제목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5) 찬송가 497장을 부르고, 봉헌한 이후 봉헌기도 합니다. (6)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구역예배를 마칩니다.
〈인터넷 참조〉 http://www.pckyesan.or.kr으로 접속, 09월 13일자 주일예배 말씀

<생각하기>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 보면, 누구나,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엄혹한 시련의 순간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건강의 위기,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풀리지 않는 경제적인 압박, 사랑하는 가족과의 갈등,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불투명한 진로와 미래 앞에, 사방이 캄캄하게 가로막힌 것 같은 절망을 경험하곤 합니다.

<설교의 요약>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다는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거대한 벽처럼 가로막아 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뒤를 돌아보니, 그들을 다시 끌고 가기 위해, 분노로 이를 갈며 추격해 오는, 바로의 최정예 병거 600대와 애굽의 대군이, 먼지를 일으키며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앞은, 깊고 깊은 바다요, 뒤는 무자비한 적군입니다. 좌우는 험준한 산악 지대입니다. 완벽한 고립무원, 진퇴양난의 위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싸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자이십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으므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출애굽 이후 지금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서, 길을 인도했습니다. 백성들은 그 기둥을 보며, 순종하여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군대가 턱밑까지 추격해 오며, 이스라엘의 후방이 위험해지자, 하나님은, 백성들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의 '뒤'로 옮기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둡고 깜깜한 먹구름을 드리워,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으셨고, 이스라엘 쪽에는, 밤을 밝히는 환한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모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방패이자 강력한 후방 방어선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내 삶의 앞에 서서, 길만 열어주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뒤에서 추격해 오는, 과거의 죄책감, 세상의 위협, 대적의 공격으로 두려워할 때, 친히 우리 뒤로 오셔서, 대적의 화전과 공격을, 몸소 막아주시는, 신실하신 보호자이십니다.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서 '동풍'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루아흐 카딤'(רוּחַ קָדִים)'은, 단순히 자연적인 바람이 아닙니다.

'루아흐'는, '하나님의 숨결, 성령'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숨결과, 만유를 다스리시는 능력의 바람을, 밤새도록 홍해 위에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통해, 거센 바닷물을 좌우로 갈라, 벽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물에 젖어 축축하고 젖어 있던 바다 바닥의 진흙탕을, '바싹 마른 땅(Dry ground)'으로 말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단단하게 밟고 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완벽하고 안전한 '마른 땅'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인생의 애굽 군대가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벌어지는 영적 싸움의 주체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앞에 있는 14장 14절에서, 모세가 선포했던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할 일은,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만히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으로 순종할 때, 막힌 바다가 '구원의 길'이 됩니다.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 바다를 가르시고 바닥을 마른 땅으로 만드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된 단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바닷속으로 발을 내딛는,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세의 명령에 따라, 마른 땅이 된 바닷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백성들이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 그 깊은 바다는,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안전한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삶에, 왜 홍해와 같은, 거대한 장애물을 남겨두실까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했던 세상의 수단과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오직 만유의 주재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여전히 출렁이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까? 눈을 들어 밤새도록 불어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동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첫발을 내딛을 때, 하나님은, 바닷속에 숨겨두셨던 '마른 땅'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가는, 가장 완벽한 '마른 땅', 곧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가로막힌 인생의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고, 슬픔과 탄식이 변하여, 감격의 찬양이 되며,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함이 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구역원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가정과 삶의 터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누기>

1. 홍해 사건과 같이, 나에게 찾아온 큰 고난을,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낸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봅시다.
2. 진퇴양난의 위기와 사망의 길만 보일 때,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이 열어주시는 구원과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홍해 앞에 서서, 환경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 원망했던 우리의 작은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애굽 군대의 추격 앞에서, 백성들의 뒤로 옮겨가사, 친히 불과 구름 기둥으로 방패가 되어주셨던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는 절대 건널 수 없는, 삶의 문제와 풍랑 속에서, 밤새도록 불어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바람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마른 땅을 담대히 밟고 나아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바다를 가르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고, 두려움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바꾸신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 구역원들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